

이 달에 만난 사람

매주 토요일 논현초등학교 길목을 지키는 이들

전도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장용희 한재순 유년부 교사 부부



논현초등학교 학생들 중 이분들을 모르면 간첩(?) 장용희 한재순 집사 부부는 매주 토요일 마다 학교 앞에 나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난다.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입술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담겼다. 어느새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하다보니 생활이 되었다. 밥먹듯 숨쉬듯 하는 일이 되었다. 물론 밥먹듯 숨쉬는 것 만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서러움도 눈물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일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토요일 학교 앞 전도하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동안 붙잡고 복음을 소개한 아이들은 줄잡아 수백명 쯤 되지 않을까? 그중 지난 해까지 유년부에 등록시킨 아이들은 30여명. 금년에 들어서도 벌써 여섯 명의 새 생명을 얻었다.

— 전도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두 분께서 전도하는 일에 이토록 열심을 내시길 된 구체적인 동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용희: 96년도부터 유년부 교사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도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지를 묻고 전하면, 학년 반 등을 수첩에 적으면,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기도. 어떤 때는 육을 먹고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보낼게요'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당시 임무전 장로님께서 같이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지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재순: 사실 저희는 논현동에서만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대문밖에서 가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과 가깝게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나서 교회에 나갈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전하면, 학년 반 등을 수첩에 적으면,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기도. 어떤 때는 육을 먹고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보낼게요'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 전도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운 일들, 또 보람있는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장용희: 어려운 것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 가정 안민한 가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데려오고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저희차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괴범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를 피해 다녔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게 되어서 문제없습니다.

한재순: 한번은요, 때려온 아이를 교회에서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엉엉 울면서 교회 전례를 돌다 다녔어요. 다행히 르네상스 호텔 근처에서 누가 찾아서 연락해 주어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서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니까 선택하신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뚜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로 인해서 그 부모들까지 결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용희: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논현초등학교 교패를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전도할 때에도 큰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중요한 게 있다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저희 딸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재순: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것을 사명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 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한다면 주님께 서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 오늘 귀한 시간을 나누시고 큰 힘과 도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상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정 현 민

(목사, 16교구·전남3부·법조인침례회·도서장학회 지도)

질문 /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다는 식으로 가르치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요?

구원파의 태도

기독교 복음 침례회(이하, 구원파라 칭함)가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은 1968년 10월이다. 구원파를 대표하는 권신환(1935년 생)은 장로회 총회신학에서 공부한 후 경북도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이다.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자책하던 중 1961년 10월 유럽에서 온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중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1962년 그 선교사를 통해 다시 침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경북도청으로부터 목사직을 제명당하고 장로교단을 탈퇴하게 된다. 이후 소위 '방교

회'라고 불리웠던 것을 표현해 주어서 '한국평신도신교회'라 하여 기성교단을 노골적으로 대적하여 수많은 교회와 교인을 미혹하고 기성교회를 분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원파의 구원론

구원파는 기존 교회의 새벽기도회, 십일조, 성수주일, 교회의 직분, 예배절식 등은 모두 율법주의라고 보며 거기에서부터 나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구원은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육신은 영혼의 지시에 따라서 죄를 실천하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며 육신의 구원은 제1때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육신의 구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10가지 질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여 곤경에 빠뜨린 후에 구원파로 유인한다. 그들의 질문문과 그 질문문에 대항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답변들은 아래와 같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의책에 확실히 기록되었는가? 확실히 알고 믿는가(제 3:5) / 거듭났는가? 거듭 났다(제 3:5, 3:15) / 성령님이 마음 속에 내재하여 계신가? 내재함을 믿는가(롬 8:9, 고전 12:3) /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확실한 믿어지는가? 옮겨졌었다(제 5:24) / 달신은 죄인인가? 죄인인가? 믿음으로는 죄인이나 행위로 죄인이다(딤후 1:15) /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회개할 것은 없지만 성화를 위해서는 남다다 회개해야 한다(마 6:12, 제 2:5) / 하나님이나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성도의 진인(백한자)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을 생각할 때 사랑과 감사를 느끼며요(4:17),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롬 11:20, 빌 2:12) /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확실하 구원받았다(엡 2:8, 1:12) /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구원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남다다 준비하여야 한다(살전 4:13, 5:11) /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함(골 9:16),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제 3:16).

비판

구원파는 현재 전국 각지는 물론 미국, 캐나다 등 교포사회에게까지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중시하므로 그들은 폭행, 거짓말, 속임수를 선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고 개인의 가정 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게 함으로 세상에 선량한 성도들의 영육을 아울러 노략질하는 이 미만에 대해 기성교회에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결단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위에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국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 교역자님들의 지론을 구하여 지면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들 소식 / 부시 탐방

지체들 소식

▶ 영아부

따뜻한 봄날인 오늘, 영아부에서는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에 새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만 2세까지의 자녀를 둔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영아부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아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아가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송해경 통신원)

▶ 유아부

4월 26일, 400명을 목표로 어린이 초청 잔치를 가집니다. 3월부터 기도로 준비해 왔고, 전도지 배포, 봉당 앞 전도, 교회주소록을 통해 알게 된 부모님과 대예배만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전화로 했었고, 이번 주에는 염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지난 주일 예배시간에는 인형극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초청 잔치 당일인 오늘은 바이올린과 트럼펫 특선이 준비되어 있고, 푸짐한 선물을 있습니다. 또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아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유아부에 보낼 연필(4세, 5세)의 아이들을 대예배만 데려가시는 부모님들 일단 유아부로 보내 주세요. (임미순 통신원)

▶ 유년부

유년부 잔양대가 5월 1일 금요일 집회 시간에 특별한 잔양을 하기로 했대요. 찬송가 458장 '주의 진결한 팔에 안기세'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연습하고 있어요. 지휘자는 안설희 선생님이시고요, 반주자는 한경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용순 과장님과 윤숙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시구요. 유년부 어린이들이 드리는 귀한 잔양을 하나씩 해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어요! 우리 출전 성도님들께서도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세요! (장지훈 통신원)

▶ 중등2부

"말은 언어를 수단으로, 글은 문자를 수단으로" 이것은 어느 국어학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등2부 교사실에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1차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자고 갖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노력하여 왔지만 여전히 출석률은 7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 주일 결석한 친구들에게 주보도 보내고 전화도 하지만 출석률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연구한 끝에 마련한 것이 "편지쓰기, 이렇게 하세요"란 프로그램이지요. "이 자리에서 편지 편지한 번 써 볼까요. 먼저 이름을 불러

보세요." 이제 선생님의 말씀처럼 결석한 친구가 곁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염려하며 궁금하였던 점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리라' 굳게 다짐하시는 우리 교사를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나성애 통신원)

▶ 청년2부

청년2부에서는 5월 5일 춘천기도원에서 1일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2부의 형성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오전에는 자체 특강으로 행복만들기(전형준 목사님:부부들 대상), 사랑만들기(이형수 부감님:미혼남녀대상), 오후에는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유익하고 알찬 하루를 보내기로 했사오니, 뜻있는 30대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중국 단기 선교팀이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형준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위원인 이신동 장님님과 장로님들의 7월) 사역을 위한 준비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매주 화요일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1명당 2명씩의 기도 후원자와 재정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3월초 탄저니아 선교사로 떠나신 윤필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명화 통신원)

▶ 춘천복지단

제18회 장애인들의 날을 맞이하여 삼성건설(삼성 물산 건설 부문 사회봉사단)의 후원으로 4월 18(토) 용인 에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훈련생 90명, 직원 35명, 자원봉사자 10명(삼성건설) 등 총 135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삼성건설에서는 장애인들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 복지 측면에서 후원할 단계를 모색하던 중 우리 복지관과 연결되어 참가자들의 무료 입장권과 놀이기구 5종 탑승 티켓, 차량(대형 버스 3대),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하여 훈련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한 조당 5-6명으로 나뉘어 에비랜드를 누비며 푸르른 봄 날을 마음껏 만끽했고요. 마침 장애인들의 날을 특별 축제라 한창이어서 모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놀이 기구도 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구경하며 신나게 즐겼습니다.



탐방 - 장년1부

성숙한 장년1부

삶의 여정에 있어서 사심대는 어떤 시간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실의 단단한 열매를 맺는 시간일테고 개인적인 발을 찾아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고독한 시간일 것이다. 어쩌면 사심대는 쉬지 않고 '시지프스의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는 가장 힘든 때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은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대이다. 그러나 속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도 심리히 힘닿다 하소연할 필요 없는 처지, 철없이 속마음을 털어 놓기엔 너무 지각이 든다, 그래서 고독과 빈민으로 빚을 이루지 못하는 사심대가 높아 가고 있다. 이런 사심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사심대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우(杞憂)였다. 정작 장년1부의 모습은 너무나 밝고 명랑했다. 혹시 이 모습은 각식이 아난가 의심이

들 정도로 완하고 출만했다. 그 밝음의 실체는 믿음이었다. 믿음이 삶의 질고를 주님 발 앞에 내려 놓게 하였기에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장년1부를 소개하시는 총무저장님은 장년1부는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부서라고 소개하셨다.

박형용 목사님이 지도하시고 손경수 장로님이 이끄는 장년1부는 매주 12시 20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교육관 407호에서 집회를 갖는다. 55분의 교사가 거의 100% 출석하며 봉사하고 학생은 280명 정도 출석하여 매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의 교육 목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장년1부' '사랑으로 교제하는 장년1부' '열심으로 봉사하는 장년1부'로 정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

쓰고 있다. 이 목표를 두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학생들은 서로 격이 없는 열린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말이라도 다 나눌 수 있는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들의 열의 또한 대단하다. 선생님들은 수시로 전화 심방과 발신방을 하여 양들을 보살피는 일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 출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목사님의 말씀은 주로 사심대의 특성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인데 기사가 탐방한 날의 강의는 '부부생활을 위한 십계명'이란 주제였다. 그리고 목사님의 강의가 끝난 뒤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기도를 요청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구함함으로써 구생원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신다.

특별 기획으로 장년1부의 학생들 중에 분야별 직원을 선정하여 시기 적절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는 'IMF 시대의 40대의 정신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박종학 정신과 의원 원장님이 특강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장년1부에서는 최근에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하였다. 그것은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 실업인전도회와 연계하여 취업 안내를 시도한 것이다. 실직자들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일꾼을 구하려는 일터에서는 원하는 일꾼을 구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 기획은 상부상조하는 공동체간의 모습을 보여 주는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월에서 계획이 완료되어 지금은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머지

않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지만 장년1부 모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 두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 번 와서 장년1부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권한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외로웠던 기억이 있는 사심대라면 이 곳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비바람 부는 들만큼 흡수시켜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심대로 이곳을 찾으십시오. 사심대가 저야 할 힘의 무게로 어깨가 휘청일 때, 장년1부로 와서 위로와 보람을 받으십시오. 당신히 마음을 열고 들어 오십시오 하면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손을 흔드는 동안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서 사심대 공동체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글/정연희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 알림

1. 장학현금/오월 1,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2. 성전식 안내/5월 3일(다을 주일) 1, II, III, IV, V부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오늘까지 교구담당 구역자에게 신청하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5월 3일(다을 주일) 15:00-16:50, 5월 10일(주일) 15:00-15:50
· 문답: 5월 10일(주일) 16:00-16:50, 각 교구별 장소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학습), 307호(세례), 310호(유아세례)
· 학습, 세례식: 5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본당
· 유아세례식: 5월 17일(주일) 15:00, 갈릴리움
4. 새가족 환영회/오월 교구모임시 각 교구모임장소에서 있습니다.

● 모임

1. 장로 화요세백기도회/28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찬양위원회 월례회/오월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3. 구역위원회 월례회/오월 15:30, 선교관 301호
4. 행정위원회 월례회/오월 15:00, 사무국
5. 2교구 협의회/30일(목) 18:30, 노아식당
6. 실업인전도회·군전도회·교정전도회 주일기도회/매주 15:30, 사랑부실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30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안수전도회 월요세백기도 성경공부/27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9. 권사회 제4회 월례회/29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 올 9/오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2. 오. 한 7/28일(화) 19:30, 김진구 집사댁
3. 미리아[17/28일(화) 09:00, 목련마을 중담 사회복지관 (0342-711-9238)]

● 결혼

1. 조천호군(조정현 집사, 김미애 전도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이미희양 (이정훈 집사, 김봉재 전사자의 딸, 제8교구)/28일(화) 12:30 갈릴리움
2. 이영호군(이기영 성도, 이의섭 집사자의 아들, 제12교구)과 윤수영양 (제19교구)/30일(목) 12:30 갈릴리움
3. 이성규군(이인영 성도, 이현우 성도의 아들, 제1교구)과 이영주양 (이석희 성도, 고유순 집사자의 딸, 제19교구)/5월 1일(금) 12:00 갈릴리움
4. 김형기군(강영자 집사자의 아들)과 장수진양(강병기 목사, 정수자 사모의 딸, 제19교구)/5월 1일(금) 14:00 갈릴리움
5. 송준엽군(송지호 집사, 이문구 전사자의 아들, 제15교구)과 최금리양 (최현희 집사, 박세순 집사자의 딸, 제15교구)/5월 2일(토) 12:30 복지관
6. 손성일군(손재현 씨, 최애숙 씨의 아들, 제9교구)과 김인하양(유종순 성도의 딸)/5월 2일(토) 13:00 갈릴리움
7. 김윤홍군(김대라 씨, 김선희 씨의 아들)과 박혜정양(박우현 성도, 최영선 집사자의 딸, 제16교구)/5월 2일(토) 14:00 부산 동래관광호텔 (본당앞에서 07:30 버스 출발)

● 주수 및 전회번호 변경

1. 정정길 집사, 이영자 집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16-5, 25블록 6호

● 5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절로)					찬양 예배 (안주입사)	
		I	II	III	IV	V	I	II
5	3	이하영	임문재	강봉수	최명환	정정주	고병국	김동래
	10	김관남	이정우	전홍용	이승철	이지걸	고정일	김미자
	17	한승규	전윤열	임기재	정홍식	손 철	황영일	김석윤
	24	김방진	김명수	김영수	김민기	박용규	김원균	김성준
	31	김자영	박성학	윤병석	손동훈	우기철	이동명	고명진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59	윤양자	3	에스더	한정희(3)	775	이길홍	13	소망부	박진주	791	박진주	19	에마다부	김관대(9)
760	구갑문	1	베드로		776	오정자	14	에스더		792	강민아	19	에마다부	박소정(19)
761	윤일자	1	루디아		777	이진연	19	대학부		793	한상일	1	바울	
762	김준지	1	고등부	778	강세진	19	대학부	794	김정애	1	하나			
763	김도엽	1	고등부	779	이인정	19	대학부	795	김현선	1	루디아			
764	한희희	1	청년1부	780	나인애	19	대학부	796	장영란	10	바울			
765	황지재	4	소망부	781	윤연애	4	대학부	797	이정애	10	하나			
766	이영하	5	청년2부	782	박미경	19	청년1부	798	한태윤	19	청년2부			
767	함규준	5	청년2부	783	박미숙	19	청년1부	799	서호진	19	대학부	강성일(19)		
768	이현순	5	루디아	홍현기(5)	784	김은영	19	청년1부	800	이은정	19	중등부		
769	최종미	7	청년1부		785	정수진	19	청년1부	801	현정진	19	대학부	이주영(19)	
770	남현숙	9	바울		786	정수미	19	청년1부	802	신미주	19	중등부		
771	윤만식	11	베드로	조수진(5)	787	조윤호	19	청년1부	803	김창열	1	청년1부		
772	이현희	11	루디아	김효정(2)	788	전연숙	19	청년2부	박선홍(13)	804	이정란	19	청년1부	
773	윤정혜	11	고등부	김효정(2)	789	박성경	19	청년1부		805	오창훈	19	청년1부	
774	윤영선	11	중등부	김효정(2)	790	남일현	19	에마다부	박인기(8)					

※ 찬양위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1.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구역자들이 이번 구역자 수련회(27일-29일)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2. 근검절약의 내핍생활을 실천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할 일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주산전경동부, 교구별 영성훈련, 남성도 구역모임, 구역장 훈련이 많을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4. 각 예배문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찬양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5. 모든 성도들과 기도와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의가 활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소서.
6. 새백기도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하게 하소서.
7.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8.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다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비리야 할 죄를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윤성 김희수 이재대 박경환 김동석 김명수 전홍환 김지혜 이숙수 정갑진 정현민 조무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사광진 이송학 정해성
- 협동목사 윤영락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근 안석필 김영태
- 집사자 이종환 박노현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어전도사 최순복 전연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근 김경자 배옥민 최희재 손미희 송형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복을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엄현일 한승일 이종란 김영기 송원식 장광호 조재민 최진우 하용구 이보현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청송교도소 전도집회 은혜 중에 마쳐

청송 제1, 2교도소에 65명의 외부인이 들어가기에 처음이었다. 교정전도회 회원들의 성심한 준비와 뜨거워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50여명의 결신자들을 허락하셨다. 설교는 김재철 목사가 맡았다.



순이의 주머니

순이아니의 주머니에는 무엇을 넣었니?
"나의 주머니에는 기쁨을 넣었지"

순이아니의 주머니에는 무엇을 넣었니?
"나의 주머니에는 기도를 넣었지"

순이아니의 주머니에는 무엇을 넣었니?
"나의 주머니에는 믿음을 넣었지"

그리고 나의 주머니에는 사람이 들어있어.

이정신
(15교구)

5월 3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지저스라이프 중창단(미아노/김소영) <찬양곡>
· 하늘 가는 법은 길이(한 545장) · 순례자의 노래
·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 저 장미꽃 위의 이슬(한 499장)
- ◆ 3부예배 플루트 동현희와 종현 목원5중주(미아노/노용진) <찬양곡>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한 469장) · 축복송
· 하나님의 음성을 · 내가 천사의 말만 다해 드
- ◆ 4부예배 트럼펫 안희현, 임시진(오르간/조희영) <찬양곡>
· 우리 주의 나팔 소리 · 이 세상 형제(한 197장) · 생명의 장성
· 누가가 기도해 · 하나님의 은혜로(한 410장)
- ◆ 5부예배 소프라노 박희정(미아노/김경아) <찬양곡>
· 내 피 사할 만고(한 210장) · 주님과 함께
· 곤한 내 영혼(한 464장) ·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한 489장)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어린이주일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 천국일꾼 양성은 어린이 때부터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11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전리의 거울이 된다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후로 예수님과 어린이 사이의 친화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반사회의 흐름을 좇아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다만 1780년 로버트 레이크스가 영국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소외된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 주일학교를 시작한 이래 교회학교를 통한 어린이 신앙 교육은 대다수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사역이 되어왔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어린이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교회에 주신 것이다.

어린이주일의 연례행사 지켜져 왔는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교회들은 매년 한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해 그 날을 통해 어린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헌신케 하는 관습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1865년에는 매년 6월 둘째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체로 매년 5월 첫째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주일을 통한 어린이들의 헌신과 부모들의 재헌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축소되어가는 반면 어린이들에게 일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행사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교회들마다 어린이주일의 근본 취지와 목적

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확실히 열여두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 가운데 우리 교회 소년부는 오늘 어린이주일을 어린이 헌신에 매료 드린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영·유아·유치부를 방문하여 충현의 어린이들이 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잘 자라 천국일꾼이 되기를 기원하는 안수기도를 드린다. 또한 영아부는 반별로 친교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 특별히 임마누엘찬양대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찬양대원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행사들과 아름다운 헌신들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어린이들이 진정한 천국일꾼들로 아름답게 양육되어갈 수 있도록 은 교회는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실천해가야 하겠다.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5월 11-14일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거행된다. 금번 기도회 참석인원은 약 4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큰 부분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단 목사, 장로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결속한 기도를 회복하고 가슴을 씻는 참회의 기도회와 교회와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회 통해 세롭게 헌신되고 맑은 바사명을 순결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더 거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98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5월 17일 실시

5월 3, 10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5월 17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3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원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정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1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5월 10일 (주일)	2교시 16:00-16:50	문답	교육관 장소	문답	교육관 장소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배 찬양예배, 문답)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교역자수련회 화합과 일치, 감사와 헌신으로 마쳐

98년도 상반기 교역자수련회가 지난 4월 27-29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되었다. 특별히 금번 수련회는 사순 화합과 섬김의 수고가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어 모든 교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 하나됨을 깊이 체험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첫날 오후에 가진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위임목사와 원로목사의 특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말씀 읽기와 말씀연구세미나, 몸과 부대끼는 공동체 훈련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몇몇 장로들의 사랑의 손길과 기도원 식구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더욱 값사나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다. 이 수련회를 통해 교역자

들은 하나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의 사역을 다시금 결의할 수 있었다.

오늘은 성찬의 날 1-5부예배시

오늘 1-5부예배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도들은 성찬식을 맞아 경제적 불황으로 당당히 겪게 되는 영적 불안 의식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는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좇아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직원 모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1) 세례를 받은 자로 40세 미만
(2)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3) 영어 회화도 가능한 자
(4) PC 사용이 가능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처: 비서직(남) 0명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4.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교한 402)

교회 주변 도로 일방통행 안내도

지난 주부터 교회 주변 도로의 일부가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었다. 안내도를 참고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다.



봄철 교회 주변 대청소 지난 4월 22일 수요일 2부예배 후에는 교구별 교회 주변 대청소 시간을 가졌다. 지역 사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모아 거리를 깨끗하게 하듯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사회가 영적으로도 경신을 이루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거운 기도와 순결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하겠다.

금주의 교역 성령훈련
5월 7일(목) 제14교구
5월 기도회 담임 목사
김재현 목사



김창인 목사

다메섹과 북 이스라엘과 앗수르에 관한 경고

(이사야 17:1-14)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분수를 넘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7장에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수리아(12-14절)와 이스라엘
(3-11절)과 앗수르(12-14절)에 관한 경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어떠한가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이며, 그 주
위는 견고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원수
가 쳐들어 올 수 없는 천연요새입니다.
다메섹에는 농작물과 과일과 소출이 풍
성하고 꽃들은 다른 곳에서 구경할 수
없는 만큼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다메
섹은 철저히 훈련된 정예군이 지키는
견고한 성입니다.

(1) 다메섹이 하루 밤에 멸망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메섹아, 네가 오늘 수리아 지방
에서는 진주처럼 아름답구나 멸치않아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고 말겠다는 무
서운 선언을 했습시다.

(2) 다메섹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다메섹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스라엘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 유다
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런데 여호와와 그의 남 유다의 예루살
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
왕 히르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들 배
반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별다른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을 구
한 신”이라며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왕상 12:29).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 이런 것을
백성에게 간요하였지만 백성들 가운데
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서 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가
서 예배를 드리고 읍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아와 연합군은 조직하여 유다를 멸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허물어 버
리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다메
섹에 대하여 “네가 아무리 세력이 강
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
유다로 쳐들어 오는 것은 멸망을 자초

하는 것이다. 또 너희가 정할 남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면 너희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
러나 유다를 침략할 생각은 아예 버려
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3) 다메섹이 어떤 모습으로 망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질 당하리
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놀
리게 할 자기가 없을 것이며”(2절)
“아로엘”은 수도 다메섹을 지키는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인 아로엘이
양치는 목장이 되겠다는 말은 사람이
사는 집들이 모두 파괴되고 한낱 풀밭
으로 변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러나 다메섹은 이사야가 외친 경고를
듣지 않았고, 유다 침공으로 세력이 커
질 것을 우려한 앗수르의 침략으로 이
사야가 예언한 지 3년만에 다메섹은 흩
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2. 북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가 어떠한가

(1) 북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멸망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① 이스라엘이 중병환자들이 죽어가
듯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아람의 영향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라”(4절)
중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가듯이 이
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겠다는 이사야의
경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담겨 있었습
니다. 갑자기 죽지 않고 병을 주시는
것은 오래 앓는 동안에 회개하면 용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기를 망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스라엘이 멸진지 극한 같은 존
재들로 조금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추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
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뿜 것 같으리라”(5절)
장정들은 다 죽고 부상병과 나이가 많
은 늙은이들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③ 이스라엘이 다 망하여도 신앙이
홀륭한 자는 살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를 믿고 있었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두, 세 개가 남을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단 가지에 하나, 오 개
가 남을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6절)

④ 이스라엘이 정장은 찢혔으나 농
작물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
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
이 없어지리라”(11절)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
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멸망을 거들 뿐
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악한 마음
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해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첫째로, 북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
님을 배반한 죄로 망할 것입니다.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
기고 이방신인 아세라 목상과 태양 우
상을 섬긴 죄로 망할 것입니다. 셋째로,
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과 결탁한 죄로 망할 것
입니다. 넷째로, 북 이스라엘은 형제를
죽이라는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형
제인 유다를 멸하려고 원수와 연합하였
으니 망하지 않았습니까.

3. 앗수르에 관한 경고가 어떠한가

(1) 앗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앗수르는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삼
켜 버린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수리아
와 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조 유다
를 침략할 초침이 보이자 이들이 연합
하여 유다를 치고 그 결과 세력이 더욱
강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섬멸해 버
린 것입니다.

(2) 앗수르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앗수르가 멸망한 것은 분수를 지키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수
리아를 정벌하고 보니 상당히 수지가
맞았습시다. 이 정도대로 그쳤으면 앗
수르가 망하지 않았겠는데 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군이 먹어 버리려던 유다
가 눈에 보였습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앗수르 군대가 전쟁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전을 힘
써 버리려던 연합군은 하나님을 멸망시키
려 때에 앗수르를 동맹으로 쓰신 것 뿐
데 욕심이 생겨서 유다를 먹으려고 분
수를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려고
하나님마저 업신여겨 군대 18만 5천 명
을 파병하라는 계획을 세웠습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후에 뵈일이
지만 이것을 벌써 보았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다는 손을 대지
마라. 만약 너희가 유다에 손을 대면 유
다군이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직접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
나님이 너희를 치시면 너희가 저녁까지
떠들다가 새벽에는 조용해지겠다” 이러
게 무서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포
위한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에 의해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
입니까

첫째로, 수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용을 당하지 말아야 했었다는 것을 배
워야 합니다. 누가 멸소리를 다해도 다
른 사람을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미혹하
는 말을 듣는 시간에는 죄없는 나도 멸
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을 개
획했던 사람보다 고임에 넘어가 따라
갔던 사람이 감옥에 더 잘 들어 갑니다.
못된 일을 계획했던 사람보다 이용당한
사람이 매는 더 많이 맞습시다. 그러므
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하지 말고 단단히 굳어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형제를
죽이려고 이방과 연합한 이스라엘이 먼
저 망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멸망기 전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 했으면 책망해 주시는 말
을 고맙게 듣고 미리 고쳐야 합니다.
책망을 듣고도 고치지 않고 더욱 뾰나
가는 기회를 놓치고 망하게 됩니다.

넷째로,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할 것
을 배워야 합니다. 앗수르가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상당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했다면 좋
았겠는데 분수를 넘어 유다까지 정벌하
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분수를 넘어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 주
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
랍니다. **■**



김성곤 목사

베드로의 변론

(사도행전 4:5-12)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은
참으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꿇고 경배하게 하시며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에는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이름들은 종교계와 정치적, 경제계와 문화계 등을 망라하여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가 일정한 권위를 가진 이름들로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우리들의 부모님 및 고용주나 사장님, 성직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경해야 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존경받을 만한 조건으로 여겨지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수행을 위한 그 지위에 합당한 존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전적으로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답변은 참으로 강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얀은병이를 고쳤을 때, 그 기적에 놀란 우리들은 성전에 있던 그를 주위로 모으려 했습니다.

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기적과 전하신 말씀을 목격하고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이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분위기를 빨리 파악한 후 당대히 무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순절의 무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증거되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선언과 가르침에 크게 당혹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 저분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1:3).

특히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몹시 혐오

했습니다(마 22:23).

이에 따라 다음 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했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오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들이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5:7절).

베드로와 요한이 얀은병이를 고쳐 준 사건이 좌막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의 결과로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일을 위해 누군가를 도와 주려고 한 것 때문에 경찰에 구속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8:10절).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례받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었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생각없는 말을 했을 결과 예수님의 무서운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지극한 은유함과 사랑으로, 또한 지혜롭고 권세로 넘치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담대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격한 태도로 상대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청중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일어난 기적은 범죄가 아니라 선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관원과 장로들을 향하여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치유의 이적을 베풀 것이라 고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은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얀은병이를 일으켜 새 생명을 증거합니다. 그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뭇돌이 되었느니라"(11절). 곧 이미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할 것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 중요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인용하신 바 있습니다(마 21:42).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들 앞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변론의 마지막 한 문장은 그야말로 천둥번개와 같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12절). 이 말씀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질문, 곧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리의 영의 이름리스임을 받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전리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참으로 간단명료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전리의 성령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은 그가 우리의 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이름

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쉬게 해 준다고 약속하는 이가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 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존경과 순종, 믿음에 합당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외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며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선언과 경고, 그리고 그의 초청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완전한 승리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이 얀은병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은 참으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꿇고 경배하게 하시며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

선교 정보 나누기 - 방글라데시

뿌리 깊은 가난 속에 '평화'를 꿈꾸는 나라

방글라데시는 1757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다. 190년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다시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이라는 더부살이 신세가 되었고 완전한 독립국이 된 것은 겨우 27년 전인 1971년 3월 26일이었다.

만일 정치적인 독립이 평화를 의미한다면 방글라데시는 지난 20여년의 세월 동안 평화를 누려온 셈이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의 얼굴에서 평화를 잃어내 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도 다카에는 아직도 영국인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 택시 택사가 달리고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뿌리 깊은 가난, 대다수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처한 절대 빈곤은 굶주림을 지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보다 조금 더 넓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1Km²당 963명으로 세계 1위, 총 인구 약 1억3천만명으로 매일 6천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면서도 상당량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황마(जूट)가 농가의 주된 수입원이다.

여자들의 바깥 출입을 금하는 이슬람의 오랜 전통으로 담당 바깥의 일은 모두 남자들이 차지하며 여자들은 집안일과 허드렛일을 맡아 한다. 12-13살 어린 나이에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갔던 방글라데시의 여자들은 남편과 아이가 먹고 남은 음식으로나 끼니를 이으며 사내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평균 7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제 나이에 맞는 채 살아간다.

무절제한 출산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

다는 비난을 받지만 "남은 애들 중 몇 명이 살아 남을 줄 모르니까 일단 많이 낳는다. 가난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지도 못한다"는 그들의 항변은 처절하도록 가난한 그들의 상황을 말해 준다.

수도인 다카 시내에는 외국인 투자로 세워진 섬유공장이 800여개 있다. 세계에서 가장 찬 값으로 섬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가 늘 그러하듯 환기 시설이나 안전시설도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10대 여공들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

방글라데시의 영적 상황은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써, 회교가 87%에 이르고 거의 전세가 회교 근본주의자들인 수니파에 해당된다.

그러나 1971년 내전시 회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파키스탄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교에 대한 방그라데시인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기도 했다.

정치적인 독립, 부정부, 부패, 빈곤, 질병, 18번의 쿠데타 등 사회의 혼란으로 17년(1971-88년) 동안에 얻은 종교의 자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0년 동안 기독교인의 증가율은 전인구 성장률의 2배에 이르렀다. 특히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추세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불행의 땅 방글라데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올 그 날을 꿈꾸며.



선교를 위한 요일별 기도제목

가정의 답을 맞이하여 선교사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월)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김수현 사모와 석선, 석현)

화) 수리남 안석철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이성욱 사모와 소영, 위영, 요한)

수) 수단 김명태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박영애 사모와 은비, 영화, 영석)

목)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동역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하여

토) 선교위원회 봉사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모국 방문 체험기

모국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당신의 모국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깃발과 함께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나는 누구인가? ‘한 국은 어떤 곳일까?’ 낯 낳아 주신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입양인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모국을 방문한다.

내가 태어나 겨우 6개월 머물렀다는 한국. 내가 다시 한국 땅을 밟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고,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고,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 있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궁금했다. 내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



해보려 하지만 내가 사는 덴마크에는 나와 같은 모습의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떠올려 지지 않았다.

19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실컷 보았다.

Ann E. Hegelund

그 속에는 내가 보고 싶어하던 노인들의 모습도 있었다. 내가 머문 가정들을 통하여 느낀 수 있었던 가족간의 유대감과 여유로운 모습의 시골 풍경, 강, 바다, 들녘... 어느 것 하나 이상하게도 낯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덴마크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나 한국과 나와는 이 먼 여행을 하기 전처럼 더 이상 먼 거리에 있지 않다. 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사진 / 지난해 우키 교회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입양아들)

칼럼

국외로 입양되어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합니다. 입양인들이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을 체험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혀 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민박할 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초청일시

1998년 7월 4일(토) 오후 2시 -

1998년 7월 5일(주일) 오후 2시

신청방법

선교 위원회(선교관406호)로 직접 신청

접수

5월 3일(주일) - 5월 10일(주일) 오후 5시

문의 / 552-8200 (교한) 356